



보 도 자 료

Press Release


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 조직실(061-338-6684) / 제공일: 2021. 6. 16. (총 2매)

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,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나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노조활동비 절감해 지역농산물 사주기 동참

보 도 요 지

- ◇ 농어촌공사 노동조합, 약 7억원 노조활동비 절감해 전국 각 노조 단위별로 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 전개
- ◇ 지난해 3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약 1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- ◇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는 선도모델로 선보여

-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(위원장 박종석)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노조단위별로 지역 농산물 사주기를 전개한다.
- 노동조합 활동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약 7억여원의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예정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 중단 등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.
- 공사 노동조합은 전국 각 지역에 12개 지역본부와 135개 지부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구입할 예정이다.

- 지난해 활동비 절감분 약 3억원으로 지역 농산물 살리기를 전개한 데 이어 올해까지 노동조합에서만 약 10억원 가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.
- 공사 노동조합은 화훼농가 살리기 캠페인에 동참해 꽃 소비운동을 진행하고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- 박종석 노동조합 위원장은 “코로나19 시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경제 살리기에 노동조합이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며, “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이행에 노동조합이 앞장서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